

文化空間과 「인테리어」의 役割

朴 弘 — 건축가 · 中央大교수

● 「인테리어」의 現代的 意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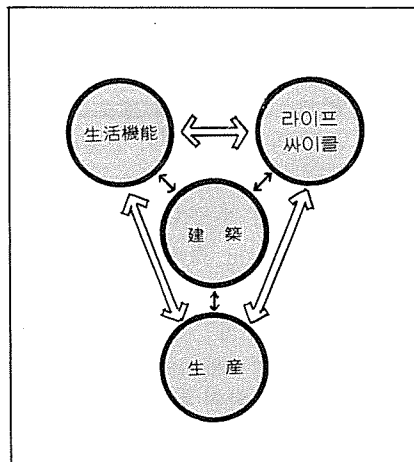
近來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일 반의 관심이 점고되고 있으며 하나의 뚜렷한 專門領域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테리어라는 것의 概念的 혼동이 惹起하게 되는 갖가지 현상은 자칫 「인테리어 디자인」의 근본목적과 相反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Interior Design)이란 말은 흔히 室內裝飾 또는 室內裝置라는 어휘로 혼동되어 풀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테리어 디자인」의 目的이 人間을 위한 쾌적성 추구하고 그 創造에 있다고 볼 때, 그 語意를 단순히 「裝置」 또는 「裝飾」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生活空間의 쾌적성 추구는 機能의 해결과 感性的 충족을 다같이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環境에 대한 이해와 建築的인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室內(Interior)를 장식한다는 것은 建物內的 求心的 매스, 즉 건물내부를 사용목적과 필요기능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個性에 맞도록 아름답고 合理的인 마무리를 짓는 디자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人間은 그 자신의 생활이나 여러가지 일을 영위하기 위해서 넓이, 즉 空間이 필요하게 된다. 이 공간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의 변화인 風 · 雨 · 寒 · 暑 등과 다른 生物의 위협, 또는 인위적인 위협이 되는 盜難 등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保護體(Shelter)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곧 住宅이요 建築인 것이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돌아 보면 人類는 이런 空間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연구를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室內空間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살리기 위한 設計, 즉 디자인을 「인테리어 디자인」(Interior Design)이라 한다.



그러나 「인테리어 디자인」은 극히 최근까지도 「家具와 室內裝飾」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커튼 · 카펫 또는 꽃꽂이가 그 代名詞처럼 인식되기도 했었다.

室內裝飾(Interior Decoration)은 어디까지나 加飾的인 것, 즉 장식하여 늘어 놓는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機能과의 차이로 모순을 느끼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第1次世界大戰 이후 이것은 建築에 한하지 않고 船舶 · 車輛 · 航空機 등을 포함하여 居住空間과 生活用具의 디자인은 사용기능을 기반으로 한 것을 요망하게 되고 家具나 室內裝飾도 이러한 경향을 배경으로 하여 생겼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인테리어 디자인」인 것이다.

● 發想의 變移와 새傾向

우리가 걸옷만 입었을 때 오는 人體의 불편함을 절충하기 위해 內服을 입어야 하듯이 遠心的 「매스」로서의 건물과 인간의 생활과의 사이에서 속옷(內衣)과 같은 機能을 갖는 物理的인 環境이 곧 「인테리어」라고 하겠다.

建築物에는 자연계와 구획하는 面인 構造體와 그 속에 사는 人間이 직접 닿는 內側面, 즉 바닥 · 벽 · 천정이 있다. 「室內」라 부르는 이 내측면은 1日 平均 사용시간이 긴 공간이기 때문에 구조체인 建築과는 전혀 다른 發想에서 디자인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보다 쾌적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室內이 아니면 안되며 또 그곳에 배치될 家具나 道具의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形態 · 色彩 · 接觸感 등을 상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생각하면 「인테리어 디자인」은 대단히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現代建築은 그 構造 · 材料 · 工法 · 技術 등의 급속한 진전에 의해서 구조적인 壽命이 비약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성장과 변화가 급속한 오늘날에는 인간의 生活速度나 新陳代謝의 週期變化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특히 住居空間의 경우

- ① 가정용 電氣製品의 발명과 대량 보급에 의한 生活技術의 변화
- ② 世帶分離로 인한 核家族化 경향
- ③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발달에 의한 유행이나 감각의 壽命短縮
- ④ 個人生活의 尊重과 推進

⑤ 經濟成長

⑥ 生活水準의 向上 등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서는 内部空間의 改造와 改築이 처음부터 예상되지만 건축물의 장비나 설비에 의존하는 생활내용은 오늘날과 같이 부단한 科學技術의 변화 속에서는 고정시켜서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끊임없는 環境의 변화나 신진대사를 예상하고 生活機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消耗品의 部材·備品·設備·裝備(가구·집기·카펫트·커튼·조명기구等)가 크게 「클로즈 업」되었고 이들의 디자인·製作·선택이나 室內외의 有機的인 構成技術은 室內計劃의 새로운 분야가 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消費패턴은 大型消費時代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생활패턴의 변화도 큰 것이라 하겠다. 또한 각종의 電化製品과 情報機器를 비롯해서 「캡슐」化한 收納空間 등은 제한된 住空間의 裝置化를 크게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 장치물들이 住空間內 요소요소에 끼어들어 정리되면 새로운 재료와 기술로 제작된 새로운 형태의 「배리어이션」이 器具들의 구성을 보다 풍부하게 연출해 내기도 하는 것이다. 生活의 容器로서의 住居는 現代生活이 요구하는 다양성과 함께 文明의 혜택을 그 容器 속에 갖추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인테리어의 目標와 役割

建築은 건물전체의 구조와 디자인에 관여하는 반면, 「인테리어」는 機能的·美学的인 면은 물론 心理的인 문제의 해결이나 독자적인 個性表現에 이르기까지 보다 섬세한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적합한 환경, 즉 生活空間을 쾌적하게 이룸이 「인테리어 디자인」의 目標이며 課題인 것이다. 그것은 건축공간에 機能的 요소와 感性的인 요소의 密

도를 높여 文化的인 空間을 構築하는 작업인 것이다. 그러나 그 계획의 기본은 人間行態에 따른 삶의 方式을 이해하고 人間생활의 原初本能에 호소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함이 중요한 課題라 하겠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고도의 産業社會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人間생활의 복잡성을 절충하여 社會를 이끌어 가는 主役인 인간에게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 業務空間, 안락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住居空間 등에 참다운 의미의 生活공간, 즉 文化空間을 창조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그 과제로 삼고 있다.

戰後에 복구된 소위 「國民住宅」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인테리어라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쓰라린 기억을 할 수 있다. 얼키설키 피난의 연장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방의 數를 채우기에 바빴지 機能이고 審美性이고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社會적 안정과 國力の 伸張으로 우리들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한 都市環境이 복잡해짐에 따라 生活공간의 美化 내지 便利化는 필수적으로 附帶되는 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경제적 풍요로 인한 人間性的 解放, 정신적인 권태로움, 게다가 철두철미한 엔조이식 사고방식 등은 새롭고 直說的이며 자극적인 것으로 大象의 「어필」은 기울고 있다. 아울러 空間本質에 대한 예리한 추구는 時代精神을 반영하고 있으며 裝飾에 대한 혐오, 科學의 눈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秩序와 形式에 대한 탐구, 벽면이나 家具 기타 디자인에서의 單一한 造形化로 인한 直線과 直角의 범람 등이 현대적 인테리어 디자인의 基底를 이루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대두되는 또다른 경향을 분석해 보면 「휴머니즘」運動의 영향에 의해서 自然主義·復古主義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機械

文明이 발달되고 그로 인한 고도의 산업사회가 導出해 낸 人間性的 상실은 그 回復의 돌파구를 自然復歸에 두고 있다. 옛것이나 自然에 대한 동경, 그것은 機械文明社會가 주는 「드라이」함을 정서적으로 메꾸어 보려는 현대인의 안간힘이다. 形態·色相·材料感 등에서 옛것이나 자연적 質感의 內裝材가 어필되고 있음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그러나 인테리어 디자인을 그 時代를 반영하는 훌륭한 作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재료와 加工技術 그리고 새로운 工法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美的造形과 構成因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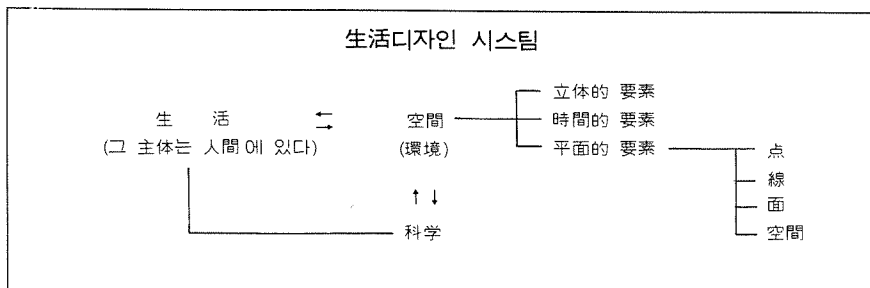
文明이 발달할수록 藝術的 創造意識이 일반대중에게도 침투하여 그들의 美的水準은 높아지고 디자인적 觀念이 實生活化되어 가는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行爲는 五官—視覺·聽覺·味覺·臭覺·觸覺—의 作用이기 때문에 디자인 감각은 모든 디자인에 공통되는 기초적인 造形의 전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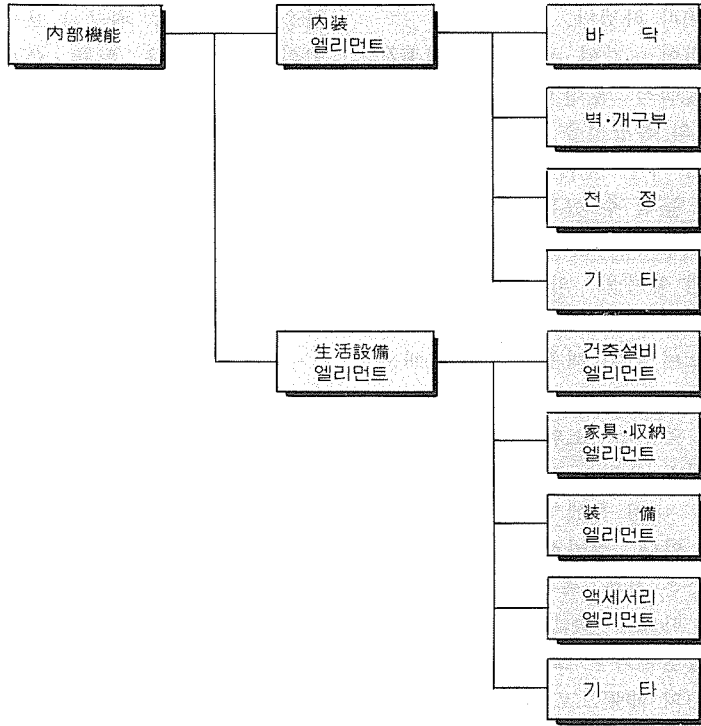
「디자인」(Design)은 어느 環境에서의 변화를 창조하고 社會에 유익한 변화를 일으키는 社會的 技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는 建築을 하는 일부 사람들도 「디자인」을 藝術의 한 분야로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序頭에서 말한 바와 같은 加飾하여 늘어놓는 식의 裝飾的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機能성과 審美性을 동시에 해결하는, 다시 말하여 實用的·美的造形을 計劃하고 이것을 可視的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디자인」의 分野는 상당히 광범위하여 근대적 생산방식을 전제로 하는 광의의 「産業디자인」(Industrial Design)과 근대디자인의 개념에서는 유리되었지만 手工作을 주로 하는 「工芸디자인」(Arts & Craft Design), 그리고 人間環境에 걸친 것으로서 「都市」·「國土」·「造景」·「建築」·「室內디자인」 등 環境디자인(Environmental Design)으로 대별된다.

오늘날 人間과 環境에 대한 문제는 생존의 可否를 묻게까지 되는 極限狀況에 도달된 느낌이다. 이처럼 環境이라는 것은 공동으로 모여서 살 수 밖



内部機能의 構成分類



대적 요소가 된다. 「인테리어」란 人体와 外衣와의 사이에서 절충하는 中間因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생활의 쾌적함을 돋우어 주는 構成要素가 된다 함은 前記한 바와 같다.

흔히 「인테리어」라고 하면 호화롭고 高價의 것으로만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생활의 쾌적함을 提高시키는 機能性和 審美性에 입각하여 볼 때 그 근본이 되는 사상은 實用性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곧 「웰터」의 개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當爲性과 일치하는 것이다.

現代 인테리어의 方向은 종래의 陳腐하고 低級적이며 裝飾過多인 住居空間이 배제되고 있으며, 솔직하고 단순하며 機能적·기계적이라는 現代적 美意識으로 일관되고 있다. 하나의 물결과도 같은 復古風의 自然材를 導入하는 室內도 곧 실증나기 때문이다. 몇십년 전에는 좋았다고 생각되던 機能이 과학의 진보에 따라 더 편리한 새로운 機能으로 발전되고 이러한 진보에 따른 視覺的 變化는 오늘의 形을 오늘 창조할 수도 있고, 차츰 개량되어 점차 오늘의 形으로 移行하여 왔다는 점진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생활용 器具의 본질적인 機能은 그리 변하지 않았으나 材料·色彩·形態는 現代적 감각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이 現代적 실내를 연출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는 基本的 背景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적 환경이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인간의 行動樣態도 思考方式과 함께 변질되기 마련이다. 아파트가 없던 韓屋에서의 住居와 現代적인 생활패턴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로해서 機能은 인간의 육체적·사회적·정서적 욕구에 따라야 한다고 「엘리어트 베브린」은 말한바 있다. 이것은 생활의 機能化·機械化가 자칫 人間性을 유린하고 사람의 生態學的 均衡을 깨트릴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인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한 空間과 人間과의 有機的 關係가 순조롭지 못하다면 「인테리어 디자인」의 근본적인 사명감을 잃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에 없는 人間社會 속에서는 절대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代人은 고달픈 생활의 연속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서울과 같은 大都市일 때는 더욱 그렇다. 고도의 기계문명은 인간에게 편익을 가져다 준 반면 살인적인 公害要素를 선사해 주었다. 각종 媒煙으로 하늘은 시커멓고 언제 달려들런지 모르는 車輛의 질주와 횡포, 거리의 騒音과 짜증스런 歩行的 불편, 형형색색의 看板과 건물들이 연출해 내는 視覺公害 등 汚染된 도시환경은 우리를 公害의 골짜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五感은 부지부식간에 병들고 무디어져서 짜증스럽고 非正常的인 思考와 생활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神經性이라는 接頭語가 붙는 病名을 통털어 「現代病」이니 「文化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연유된다고 본다면 이것은 가공할 만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아름다운 도시에 사는 市民은 마음도 곱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곧 인간의 環境이 心性과 人格形成에

절대적인 因子가 된다는 것을 실증하는 얘기이다. 이것은 都市環境이나 住居環境이 스케일의 차이일 뿐, 다같이 인간의 생활환경이라는 同質性 때문에 그 醇化가 철저히 요구됨이 우리들의 至高한 과제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感性的인 面의 추구가 왜 필요한 가는 자명해 지는 것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보고서 惡心を 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機能의 해결을 전제로 한 室內空間에 시각적 造形性을 추구함이란 쾌적한 생활과 心理的 安靜을 주게 되는 것이다.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藝術이라고 정의한다면 「인테리어」와 그 構成因子가 美的造形으로 처리된 「室內」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原形을 찾게 되는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現代住居와 인테리어

人間的 생활을 담는 그릇이 建築이요 그 室內이기 때문에 住居空間(Living Space)의 중요성은 물이 그릇의 형태에 따르듯이 人間性的의 형성에 절